

맛보수유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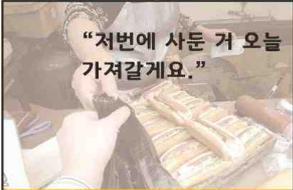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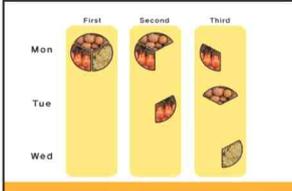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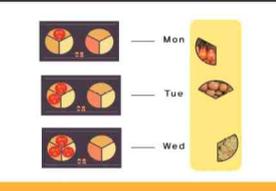
홍익대학교

산업디자인과 정하임, 안도원, 시각디자인과 관 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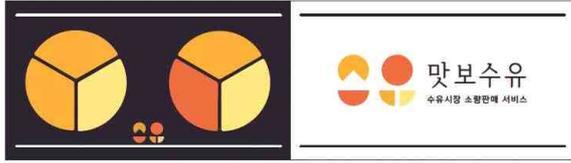
‘맛보수유’ 서비스는 ‘수유 시장을 맛보세요’라는 뜻을 가진 수유 시장의 소량 판매 서비스이다. 우리 팀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1인 가구를 시장에 유입할 방법을 고민했다. 그 결과물인 맛보수유는 구매한 음식을 3분의 1씩 나누어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이다. 고객은 음식 한 팩의 가격을 지불한 뒤 원하는 양의 음식을 원하는 종류로, 원하는 날짜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. 이는 매우 효율적인 거래 방식으로, 상인과 손님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.

ISSUE CARD - Keywords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유시장 근처 자취생들 대상 - 현재 포장은 양이 많아 쓰러기 처리문제 발생 - 취식 후 포장재의 뒷처리 어려움 	<p>Q. 어떻게 하면 사용하기 편리한 포장을 할 수 있을까?</p> <p>Q. 어떻게 하면 한 끼만에 먹기 편리한 포장을 할 수 있을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뒤처리, 포장과 봉과정에서 외부나 손에 묻지 않음 - 이동과정에서 새지 않음 - 1인이 먹기에 적절한 양 선정
MAIN ISSUE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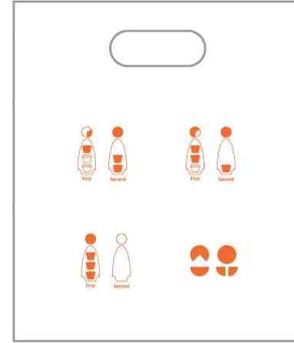
어떻게 하면 한 끼만에 먹기 편리한 포장을 할 수 있을까?

 <p>“저번에 사둔 거 오늘 가져갈게요.”</p>	 <p>맛보수유 수유시장 소량판매 서비스</p>	 <p>1인 가구에겐 전통시장에서 파는 음식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.</p>	 <p>맛보수유 수유시장 소량판매 서비스</p> <p>수유 시장에서는 나날이 늘어가는 1인 가구를 위해 구매한 음식을 3분의 1씩 나누어 가져갈 수 있는 '맛보수유'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</p>
 <p>₩</p> <p>손님은 기존에 팔던 음식 한 팩의 가격을 지불한 뒤에 원하는 양의 음식을 원하는 종류로,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.</p>	 <p>First Second Third</p> <p>Mon Tue Wed</p> <p>오늘 세 묶음을 가져가든, 오늘 두 묶음을 가져가고 나중에 한 묶음을 가져가든 상관없습니다.</p>	 <p>Mon Tue Wed</p> <p>내가 음식을 얼마만큼 가져갔는지는 쿠폰에 도장을 찍어 알 수 있습니다.</p>	 <p>맛보수유와 함께 하는 편리한 한 끼 식사, 어떠세요?</p>

쿠폰



비닐봉지



용기 옆면



종이 패키지



First



Second



First



Second



First



Second

픽토그램 설명

- 소포장한 음식을 들고가는 사람의 모습 형상화
- 머리 부분을 통해 음식을 얼마만큼 가져갔는지 표현

